

GIST 교원창업기업 (주)리셀, (주)포스코인터내셔널과 MOU 체결

- 포스코 CVC 펀드 10억 투자 이어 MOU 체결... 차세대 태양전지 필름 글로벌 사업화 협력 본격화
- 해외시장 정보 공유부터 판로 개척·공동 사업 모델 구축까지 해외 진출 전방위 협력



▲ (주)리셀- (주)포스코인터내셔널 업무협약 기념 단체 사진. 7월 23일(목) GIST 신재생에너지연구동에서 (주)리셀과 (주)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들이 차세대 태양전지 필름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첫째 줄 왼쪽 여섯 번째) (주)리셀 이광희 대표이사, (첫째 줄 왼쪽 다섯 번째) (주)포스코인터내셔널 이성수 산업소재사업실장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7월 23일(목) GIST 신재생에너지연구동에서 교원창업기업인 (주)리셀(대표이사 이광희·GIST 신소재공학과 초빙석학)이 차세대 태양전지 필름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주)포스코인터내셔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포스코기술투자가 운영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펀드*'가 (주)리셀에 10억 원을 투자하며, 양사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리셀 이광희 대표이사과 강홍규 최고기술책임자(CTO·GIST 차세대에너지연구소 부소장)를 비롯한 관계자, (주)포스코인터내셔널 이성수 산업소재사업실장, 포스코기술투자(주), 포스코홀딩스(주), (주)포스코와이드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해외시장 진출 전략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차세대 태양전지 필름의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펀드: 기업이 유망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조성·운용하는 벤처투자 펀드이다.

리셀은 GIST의 원천기술과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필름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이광희 초빙석학이 지난 2022년 설립한 교원창업기업이다.

리셀이 개발한 차세대 태양전지 필름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가볍고 유연해 곡면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실내조명처럼 빛이 약한 환경에서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6월에는 한국산업은행의 추천으로 국내 대표 스타트업 박람회인 'NextRise 2026, Seoul'에 참가해 차세대 태양전지 필름 기술을 국내외 투자자와 산업계 관계자들에게 선보였으며, ▲저조도 광전지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영농형 태양전지 ▲모빌리티일체형 태양전지 등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차세대 태양전지 필름의 해외 진출 전략 공동 모색 ▲해외 마케팅 및 신규 바이어 발굴 ▲해외 판로 개척 및 공동 사업 모델 구축 등을 추진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외시장 정보 제공과 잠재 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하고, 양사는 국가별 시장 특성과 고객 수요를 반영한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장성과 사업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리셀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글로벌 사업 역량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광희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차세대 태양전지 필름의 기술력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결합해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양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규 바이어와 해외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